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전교인 수련회

일시: 2017. 9. 9 - 10(토 - 주)

장소: Honor's Haven Resort, Ellenville, NY

- 다음 주일(13 일) 예배는 자녀들과 연합예배(Bi-lingual)로 드립니다

2017 년 8 월 안내: 신 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이 현주 집사 /시편 105:1-6, 16-22, 45b

이번 주 친교: 김 민아 집사

다음 주 친교: 조 현례 집사 / 이 현주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일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 주일에배순서

2017년 8월 06일	인도: 이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70 장(통 79 장) 다함께 “피난처 있으니”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17 편 1~7, 15 이승택 집사
찬양(Choir)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출(Ex) 33:1-3; 12-23; 34:5-6; 요(John) 1:14 인도자
설교 (Sermon)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540 장(통 219 장) 다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7. 30. 주일 설교 요약

출애굽과 십계명: 구속과 언약 (출 19:3-6; 20:1-17)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사건이고 십계명의 언약의 근본이 됩니다. 구해주시는 하나님과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누리며 그의 명령을 지키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 곳에서 도움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오심으로 이뤄집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지만 실은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하십니다(출 3:8).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하실 뿐 아니라(3:12), 자기 이름을 주십니다.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돕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면 그 사람 곁에서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 곳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은 쉽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든든한 돕는 사람이 되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자기와 함께 있도록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구속”이란 말 자체가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자기 백성 삼았다는 의미입니다(출 19:4-6). 그러니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목자이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곳까지 데려다 줄 택시운전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찬 군대의 선한 용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용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언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율법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받는 일년 남짓한 기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출 19-40 장; 레위기 전체; 민수기 1-10 장).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그분의 구원 계획 가운데 중요합니다.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재산과 행동만을 조건으로 주고받지만 언약은 인격과 삶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복을 약속하신 언약은 행동만이 조건과 약속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며, 우리의 일이 아니라 동행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지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공홀히 여기고 순전하시며 거짓이 없고 자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살인하지 말고 순결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에 살인자들이 아니고 거짓말장자들이 아닙니다. 더럽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 좇지 않아도 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도둑질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을 지켜주십니다. 일벌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좋고 그의 율법은 부담스럽다면 하나님이 갈라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알았으니, 귀중한 자기 백성이라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았으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로, 그를 닮아가기로 약속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